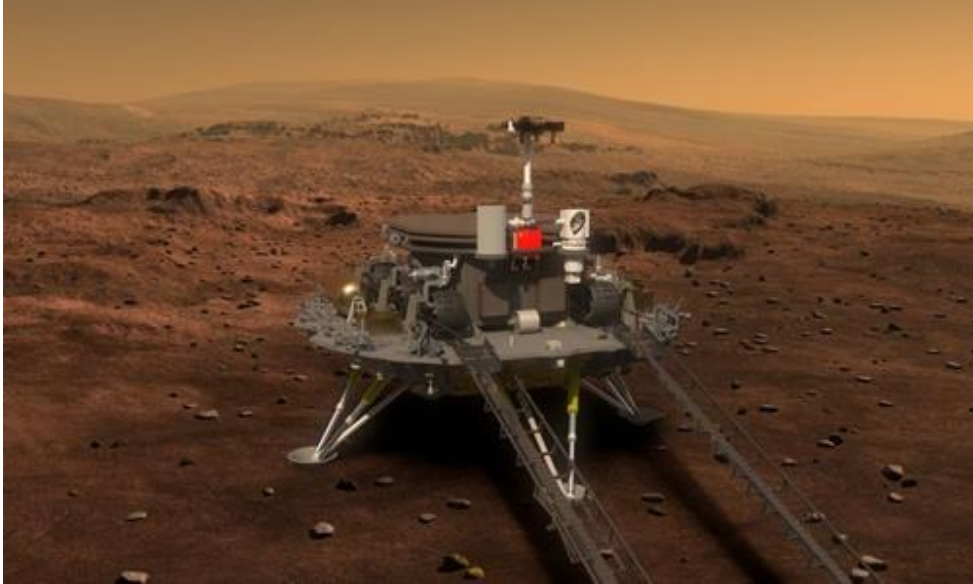




중국 '우주굴기' 가속...7월 화성 탐사선 띄운다

기사입력 2020-05-25 12:26



[글로벌 타임스 캡처. 재판매 및 DB 금지]

(베이징=연합뉴스) 김진방 특파원 = 우주 굴기(掘起)를 주창하며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는 중국이 올해 7월 화성 탐사에 나선다고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.

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은 7월 화성 탐사 첫 프로젝트로 창정(長征)-5B 운반 로켓에 화성 탐사선을 실어 발사하기로 했다.

항천과학기술그룹은 이번 임무에 대해 화성 궤도 비행과 착륙, 탐사 등 종합적이라면서 특히 화성의 주요 지점을 탐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.

'텐원(天問)-1호'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화성의 환경, 외관 특징, 지표층 구조 분석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탐사선은 착륙 임무를 맡은 궤도 선회선과 탐사 임무를 맡은 탐사차(로버) 두 부분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.

글로벌 타임스는 "중국 외에도 미국과 아랍에미리트(UAE)가 올해 7월 화성 탐사에 나선다"면서 "유럽우주국(ESA)과 러시아가 협력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는 2022년으로 미뤄졌다"고 전했다.

chinakim@yna.co.kr

- ▶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[구독 클릭]
- ▶[팩트체크] 재난지원금 총정리 ▶제보하기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1&aid=0011631567>
